

이 자료는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을 입수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5대 메이저의 경영실적 분석

- 2002년도 및 2003년 1/4분기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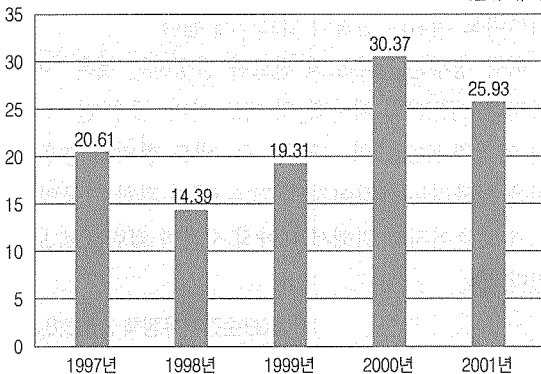
대한석유협회

서론

1998년은 WTI원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14.39달러라는 사상초유의 저유가를 기록함에 따라 국제석유기업의 경영기반을 뒤흔들 만큼 경영실적에 큰 타격을 끼쳤던 해였다. 그후 WTI 원유가격은 1999년초 이후 상승하여 2000년 WTI원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30.37달러를 기록하여 2000년 메이저의 수익은 과거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해 2001년 WTI원유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배럴당 4.44달러 하락함에 따라 메이저 각사의 경영실적은 일제히

(그림1-1) WTI원유 평균가격 추이 (1997~2001년)

(단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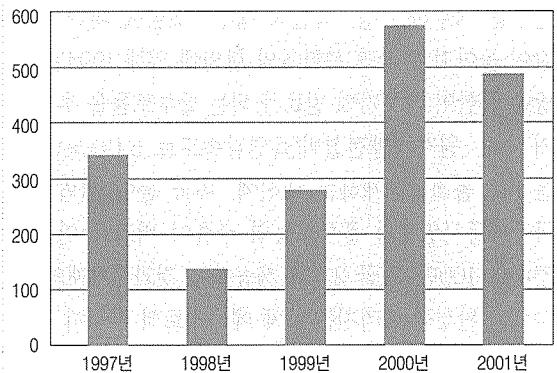
자료: BP통계

이익이 감소했다.

이처럼 과거 2~3년간 메이저 각사의 수익동향을 살펴보면 [그림1-1], [그림1-2]에서 나타나 있듯이, 원유가격 움직임에 연동하여 메이저 각사의 수익도 변동하고 있으며 원유가격과 메이저의 수익 경향이 일치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1-2) 메이저의 순이익 추이 (1997~2001년)

(단위: 억\$)



보고에서는 상기 경향을 근거로 하여 2002년 및 2003년 1/4분기의 석유메이저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영실적을 각사의 연간보고서 및 각종정보지 등을 참고로 하여 소개한다.

1. 2002년의 수익과 동향

1-1. 5대메이저의 총매출액·순이익 추이

아래 <표1-1>은 메이저 각사의 총매출액·순이익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2년의 5대 메이저 총매출액·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쉘, BP의 총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출액도 줄고 이익도 감소한 결과로 되었다. R/D셸의 총매출액이 전년대비 33% 증가로 늘고있는 이유로서는 2002년 상반기에 영국 엔터프라이즈사를 매수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것이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순이익의 증감폭은 각사 모두 2001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5사합계 순이익은 전년대비 24% 감소했다. 이익감소의 요인으로 각사 공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①천연가스가격의 하락 ②제품수요저조와 정제마진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① 천연가스가격은 2002년 상반기의 Henry Hub 가스가격이 2.87\$/백만BTU로 전년동기의 5.86\$/백만BTU에서 약 3달러(약51%)나 대폭적으로 하락했다. 다만 2002년 4/4분기에는 4.27\$/백만BTU로 상승했으나 연간 통틀어서 전년과 비교하면 저가경향은 변함없고, 2002년은 3.33\$/백만BTU로 2001년의 4.10\$/백만BTU에서 0.77\$/백만BTU(약19%) 하락했다.

②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이후 미국에서 발발한 세계적인 경제불황 영향으로 제품수요, 특히 여행객 격감에 따른 제트연료수요의 감소가 컸다. 겨울철 따뜻한 기후의 영향도 받아 2002년의 제품수요 증가는 20만b/d 에 그쳤다. 수요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공급과잉으로 재고과다, 수급조정을 위해 가동율을 줄이고 이에 따른 비용증가로 정제마진도 감소했다.

상기의 요인으로는 들 수 없으나 현재까지 메이저의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원유가격의 움직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2002년 WTI 원유평균가격은 26.16\$/bbl이었고, 2001년 25.93\$/bbl와 비교하면 0.23\$/bbl의 상승에 그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2001년 24.45\$/bbl에서 2002년 25.05\$/bbl로 0.6\$/bbl 정도의 상승에 그치는 등 2002년 원유가격은 2001년 만큼의 큰 변동은 없고, 원유가격 진폭이 메이저 각사의 실적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순이익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브론텍사코의 2002년 순이익은 2001년에 비해 △66%, 2000년과 비교하면 △85%로 큰 하락을 보여 주었다. 그 원인으로는 세브론텍사코가 26% 출자한 美에너지회사 「다이너지」와 관련한 특별손실계상이 컸기 때문이다. 美에너지 관련기업의 분식회계와 시장가격조작 등의 의혹 단서를 발표한 에너지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상실과 많은 소송 등에 따라, 美에너지업계는 피폐한 상황이다. 다이너지도 그 당사자로서 대주주인 세브론텍사코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 2002년 세브론텍사코가 다이너지 관련으로 계상한 주식평가손 등의 특별손실합계는 약 23억달러에 달한다.

<표1-1> 메이저의 총매출액·순이익 추이(2000~2002년)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셸		BP		세브론텍사코		토탈	
	총매출	총이익	총매출	총이익	총매출	총이익	총매출	총이익	총매출	총이익
2000년	2327.48	177.20	1915.11	127.19	1618.26	121.83	1170.95	77.27	1145.57	76.37
2001년	2134.88	153.20	1772.81	108.52	1753.89	115.59	1044.09	32.88	1053.18	75.18
2002년	2045.06	114.60	2355.98	94.19	1801.86	87.15	980.49	11.32	1025.40	59.41
증가율	△4%	△25%	33%	△13%	3%	△25%	△5%	△66%	△3%	△21%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1-2. 상·하류부문의 이익액 추이

본 장에서는 메이저 각사의 이익액에 차지하는 상·하류부문의 이익액 추이를 살펴보겠다. <표1-2>는 메이저의 상·하류부문 이익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각사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한다면 하류부문이익이 일제히 대폭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2년 세계규모의 정제마진의 대폭락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R/D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멕시코만에서의 2002년 평균정제마진은 2001년 5.3\$/bbl에서 2.4\$/bbl이나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로테르담 및 싱가포르의 2002년 평균정제마진은 각각 전년대비 0.95\$/bbl, 0.4\$/bbl 하락했다. 또한 토탈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정제마진도 2001년 15.4\$/t 에서 2002년에는 8.0\$/t으로 약 50%까지 폭락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유럽에서 폭넓은 하류부문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메이저 각사들로서는 정제설비의 정기·부정기 셧다운의 집중에 따른 가동율 하락(R/D셀, 토탈) 등의 비용증가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표1-2> 메이저의 상·하류부문 이익액 추이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2000년	123.69	34.18	100.59	20.68	157.10	45.58	71.55	11.35	101.13	31.44
2001년	104.29	42.27	80.23	30.67	144.98	48.30	43.12	18.14	90.22	30.04
2002년	95.98	13.00	69.97	16.18	120.05	20.81	45.56	△3.67	93.09	9.09
증가율	△8%	△69%	△13%	△47%	△17%	△57%	6%	NA	3%	△70%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상류부문은 이익감소(엑슨모빌, RD셀, BP)와 이익증가(셰브론텍사코, 토탈)로 경영실적이 회사에 따라 양극화 되고 있다. 각사의 포트폴리오 차이에 따른 다소간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주요 영향으로서

는, ①소폭의 원유평균가격 상승과 전년대비 천연가스 평균가격의 대폭하락에 따른 상쇄영향 ②2002년에 시행된 영국의 세금인상에 따른 이익감소 ③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감영향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다음의 <표1-3>, <표1-4>는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토탈 및 RD셀은 높은 수준의 원유·가스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나(각각 합계 증가율은 10%, 6%임) 상류부문의 이익공헌이 약하여 RD셀은 이익이 감소했다. 그만큼 상기의 영향요인이 이익감소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1-3> 메이저의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천B/D)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합계
2000년	2,553	2,274	1,928	1,997	1,433	10,185
2001년	2,542	2,220	1,931	1,959	1,454	10,106
2002년	2,496	2,372	2,018	1,897	1,589	10,372
증가율	△2%	7%	5%	△3%	9%	3%

<표1-4> 메이저의 가스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cf/D)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합계
2000년	10,343	8,212	7,609	4,466	3,758	34,388
2001년	10,279	9,009	8,632	4,417	4,061	36,398
2002년	10,452	9,423	8,707	4,376	4,532	37,490
증가율	2%	5%	1%	△1%	12%	3%

1-3. 자본지출 추이

<표1-5>는 메이저의 자본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의 5대메이저의 자본지출총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상류부문의 지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견조한 투자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별사로 보면 전체 상류공통으로 전년대비 플러스의 증가세를 기록한 회사는 엑슨모빌,

RD셀, BP 3개사이며 세브론텍사코, 토탈은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엑슨모빌은 아프리카, 캐나다, 아제르바이잔 등의 메이저프로젝트에서의 건설한 자금유입에 따라 상류부문지출이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상류지출점유율도 전년의 71%에서 74%로 증가하고 있다. RD셀과 BP의 자본지출 특징은 상류의 증가율보다도 전체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 RD셀은 상류지출도 전년대비 91%로 높게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엡엔터프라이즈사의 매수에 따른 것이다. 2002년은 하류부문의 매수를 활발히 진행해 미펜조일-퀘이커 스테이트사 (Pennzoil-Quaker State Company), 텍사코가 소유한 이퀄론(Equilon)과 모티바(Motiva)의 권익, 獨REW-DAE와의 벤처 경영권 등의 매수에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전체 자본지출이 전년대비 133%로 크게 증가한 결과를 낳았다. BP는 獨 E-On이 소유한 Veda Oil을 2002년에 매수완료함에 따라 하류부문의 자본지출 증가가 전체 증가로 이어졌다. 한편 세브론텍사코는 뼈대한 재무내용에 따라 자본지출을 유보하였고 또한 토탈은 2001년 남미 등의 자산매입에 따라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했다. 2002년 자본지출 경향은 이익원천인 탐사·개발, 생산사업 등의 상류부문 및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하류부문통합에 대한 자본투입 등 보다 높은 비용대비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자본투입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1-5〉 메이저의 자본지출 추이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셀		BP		세브론텍사코		토탈	
	전체	상류	전체	상류	전체	상류	전체	상류	전체	상류
2000년	111.68	68.99	62.09	38.01	476.13	63.83	95.20	62.51	83.39	56.39
2001년	123.11	87.63	96.26	68.75	141.24	88.61	120.28	71.29	105.66	74.96
2002년	139.55	103.94	224.44	131.46	191.11	96.99	92.55	62.83	86.57	61.22
증가율	13%	19%	133%	91%	35%	9%	△23%	△12%	△18%	△18%
상류지출점유율	74%		59%		51%		68%		71%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1-4. 현금흐름 추이

다음의 〈표1-6〉은 5대메이저의 현금흐름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2년말 각사 현금잔고 합계는 전년말 대비 12% 감소했으며 2000년말과 비교하면 34%나 감소했다. 엑슨모빌, 세브론텍사코는 자산매각 등에 따라 투자현금유입보다 잔고가 증가했고, 토탈은 2001년 자사주대량매입 등에 따라 재무현금유입보다 잔고가 증가했다. RD셀, BP는 각각 전술한 상·하류부문의 자산 매수에 따라 투자현금유출보다 잔고가 감소(BP는 잔고 미확인)한 결과를 빚었다.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영업현금유입에서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2002년 현금흐름은 메이저 각사의 경영전략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1-6〉 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셀		BP		세브론텍사코		토탈	
	증감액	기말잔	증감액	기말잔	증감액	기말잔	증감액	기말잔	증감액	기말잔
2000년	53.92	70.80	73.88	114.31	37.43	NA	3.31	23.28	7.59	46.00
2001년	△5.33	65.47	△47.61	66.70	10.02	NA	△2.11	21.17	△12.19	35.74
2002년	6.82	72.29	△51.14	15.56	△3.44	NA	8.40	29.57	14.69	49.66
증가율	NA	10%	△7%	△77%	NA	NA	NA	40%	NA	39%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BP의 기말잔고는 미확인

2. 2003년의 수익과 동향

2-1. 5대 메이저의 총매출액·순이익 추이

〈표2-1〉은 2003년 1/4분기와 전년동기의 총매출액·순이익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사 모두 대폭적인 매출액 증가와 이익 증가를 시현했다. 5개사의 순이익 합계는 실제로 전년동기 대비 15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메이저 각사가 기록

적인 실적호전의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①원유 가격의 상승 ②천연가스가격의 상승 ③석유정제마진의 회복 등이 있다. 다음은 RD셀, 엑슨모빌의 보고서의 내용이다.

〈표2-1〉 메이저의 총매출액·총이익 추이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총수입	순이익	총수입	순이익	총수입	순이익	총수입	순이익	총수입	순이익
2002년1Q	433.93	20.90	478.82	22.62	365.69	15.82	211.55	7.25	237.84	14.29
2003년1Q	637.80	70.40	693.74	53.31	641.86	37.29	309.65	19.20	283.03	21.20
증가율	47%	237%	45%	136%	76%	136%	46%	165%	19%	48%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① 원유가격은 북해산 브렌트유의 2003년 1/4분기 평균가격이 31.50\$/bbl로 전년동기대비 10.35\$/bbl(약 49%) 상승했다. 또한 WTI의 1/4분기 평균가격도 34.00\$/bbl로 전년동기대비 12.45\$/bbl(약 58%)나 상승했다. 이러한 급격한 원유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개시를 예측한 투기적인 시장 움직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의 파업에 따른 물리적인 원유공급지장 등을 들 수 있다.

② 천연가스가격은 2003년 1/4분기 Henry Hub 가스가격이 6.90\$/백만BTU로, 2002년 4/4분기의 4.27\$/백만BTU에서 2.63\$/백만BTU(약62%), 전년동기의 2.47\$/BTU에서 4.43\$/BTU(약 179%)나 급격히 상승했다.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특히 북미)의 배경으로는 주로 겨울철의 낮은 기온에 따른 수요증가, 미국의 가스공급 부족으로 꼽을 수 있다.

③ 2003년 1/4분기의 석유정제마진은 세계적인 제품수급균형의 어려움에 따라 극적으로 회복했다. 석유제품은 미국의 정유공장 정기보수와 베네수

엘라의 파업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지장이 발생했다. 또한 제품수요는 북미의 겨울철 낮은 기온과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대체재로서 석유 소비 등에 따라 지지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로테르담, 싱가포르, 미멕시코만 해안, 미서해안 각각 2003년 1/4분기 정제마진은 전년동기의 0.05\$/bbl, 0.30\$/bbl, 2.65\$/bbl, 4.75\$/bbl에서 3.90\$/bbl, 2.05\$/bbl, 6.40\$/bbl, 6.85\$/bbl로 크게 개선되었다.

2-2. 상·하류부문의 이익액 추이

〈표2-2〉는 5대메이저의 상·하류부문 이익액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류부문의 이익이 전술한 정제마진 회복에 뒤따르고,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금액은 적으나 극적으로 상승했다. 5개사 합계는 전년증가율 대비하여 498%였다. 동시에 메이저 각사의 이익원천인 상류부문 이익액 추이는 원유가격상승 덕분에 5개사 합계 전년대비 증가율이 108%였다.

〈표2-2〉 메이저의 상·하류부문 이익액 추이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상류	하류
2002년1Q	20.89	△0.28	15.70	3.61	19.28	0.68	11.41	△0.61	10.66	2.50
2003년1Q	56.93	7.23	30.42	10.56	43.26	6.31	17.68	3.15	14.05	5.85
증가율	173%	NA	94%	193%	124%	828%	55%	NA	32%	134%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2-3. 자본지출 추이

2003년 1/4분기의 각사 자본지출은 〈표2-3〉을 통해 나타나 있다. 상류부문에 대한 견조한 투자를 지속한 엑슨모빌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다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면 RD셀, BP, 셰

브론텍사코는 각각 전년동기의 자산매수 등에 따른 지출증가의 영향으로 감소했고, 토탈은 對달러 유로환율이 높아 동반투자액이 감소한 것에 따라 감소했고,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지난해 동기의 평균 자본지출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의 메이저 각사의 자본지출은 하류부문에 대한 투자증가에 따라 상류부문 점유율은 5개사 합계 62%였으나, 2003년 1/4분기는 76%까지 상승했다.

2003년 1/4분기의 자본지출에 관해서는 각사 모두 한숨 돌린 감이 있으나 이 기간의 특징으로서는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위한 조정으로 상류자산 매각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스타트를 끊은 것은 BP였다. BP는 2002년 사업목표로서 세운 상류부문 연간생산성장을 5.5%를, 알래스카에서 작업차질과 미멕시코만해안에서의 태풍 영향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3%로 낮추었다. 이 하방수정에 대한 주주 및 시장의 반응은 낙담적이었고 신뢰회복을 위해 BP는 생산성장 중시지향에서 주주이익 중시지향으로 경영방침을 변경하여 포트폴리오중 북해 Forties유전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수익을 및 생산량의 저하가 예상되는 상류자산의 매각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RD셀, 세브론텍사코, 토탈에도 경영방침이 주주 이익중시경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비용삭감과 이익을 향상을 목표로 하여 더욱 상류자산과 주요핵심자산의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후자산, 불채산자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탐사·개발·생산을 향한 신규투자는 기존의 성숙한 분야가 아닌 아프리카, 카스피해연안, 러시아, 중남미로 불리는 신흥국으로 물리고 있다.

〈표2-3〉 메이저의 자본지출 추이

(단위: 억달러)

	엑슨모빌		RD셀		BP		세브론텍사코		토탈	
	전체	상류	전체	상류	전체	상류	전체	상류	전체	상류
2002년1Q	29.74	22.65	40.81	15.89	57.36	23.13	21.50	15.30	21.09	16.43
2003년1Q	34.96	27.84	21.75	14.84	28.74	21.37	15.41	11.92	14.94	11.66
증가율	18%	23%	△47%	△7%	△50%	△8%	△28%	△22%	△29%	△29%
상류지출점유율	80%		68%		74%		77%		78%	

주: 토탈은 단위 억유로(€).

RD셀은 상류사업재편의 핵심으로 채산성이 낮은 상류자산의 매각을 꾀하고 있고 이후의 미국 및 영국의 자산매각에 따라 5억달러의 매각이익을 전망하고 있다.¹⁾ 또한 포트폴리오 전략상 유럽, 미국, 나이지리아, 오만,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를 「보석」이라고 위치를 부여하고 있고, 「새로운 포지션」으로는 캐나다,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동, 서아프리카, 중국, 러시아를 들고 있다.²⁾ 세브론텍사코의 당면과제는 세계전체로 연간 5~6%의 석유·가스생산량의 감소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멕시코만해안에서의 조업을 궤도진입 시키는 것, 또한 아시아의 석유정제사업의 저수익경향의 영향을 계기로 하여 칼텍스의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하류부문의 고위인사재편도 행하고 있다.³⁾ 다른 메이저와 비교하여 재무·주식 모두 열위에 있는 세브론텍사코는 이익 및 주주중시의 경영으로 움직임을 시작했다. 토탈은 2002년 연간 평균생산성장이 10%로 다른 메이저에 비해 높았으나 2003년 및 2007년까지의 동성장출을 5%로 계획하고 있다. 2003년의 자본지출은 지난해 평균인 87억유로로 그중 상류부문에 67%로 예정하고 있다. 엑슨모빌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이익 및 주주

1) RD셀은 미국멕시코만 근해 26개소의 석유·가스 자산을 Apache와 Morgan Stanley에 총액 5억달러(Apache 2억달러, Morgan 3억달러)에 매각했다. Apache는 자산보유와 조업을 부담하고, Morgan은 4년간 684억ft³상당의 생산량을 획득한다고 하고 있다.

(Financial Times 2003/7/4)

2) Petroleum Argus 2003/3/31

3) Financial Times 2003/7/16

중시의 비즈니스모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나 연간 4~6%나 되는 기존의 베이스원유생산량의 감소에 제동을 거는 새판짜기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신규유전에 대한 접근강화와 기술혁신이 중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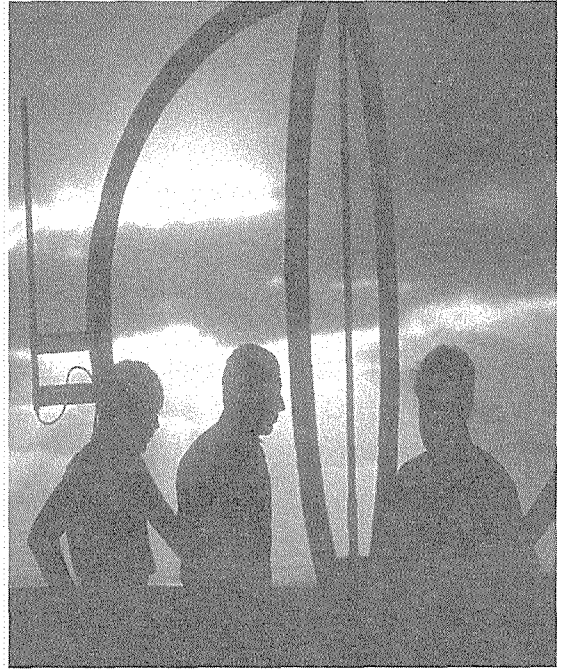
다음의 <표2-4>, <표2-5>는 2002/03년의 1/4분기의 원유·가스생산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엑슨모빌의 석유·가스의 석유환산합계 증가율은 2%였다. 나이지리아와 캐나다의 신규프로젝트의 생산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유·가스전의 생산축소와 OPEC에 따른 원유생산폭 조정, 베네수엘라의 파업영향을 고려한다면 증가율은 제로이다. RD셀 합계증가율은 6%였다. 이 대폭적인 증가는 지난해의 엔터프라이즈사 매수에 따른 신규 확대가 큰 영향이었다. BP는 멕시코만 심해의 생산확대와 트리니다드의 신규생산, 러시아의 시단코(Sidanko)에의 증자 등에서 합계 증가율은 3%였다. 토탈도 이란, 북해, 알제리, 멕시코만 등의 신규 유전·가스전에의 생산개시에 따라 합계증가율은 5% 증가했다. 셰브론텍사코는 5개사중 유일하게 합계 증가율이 5%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생산분여 계약종료와 기존의 석유·가스전에 있어서 생산감소, 멕시코만의 태풍에 따른 손해 복구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표2-4> 메이저의 원유생산량 추이
(단위: 천B/D)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합계
2002년1Q	2,541	2,199	1,989	1,975	1,558	10,262
2003년1Q	2,506	2,407	2,063	1,823	1,612	10,411
증가율	△1%	9%	4%	△8%	3%	1%

<표2-5> 메이저의 가스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cf/D)

	엑슨모빌	RD셀	BP	셰브론텍사코	토탈	합계
2002년1Q	11,740	10,456	8,746	4,457	4,607	40,006
2003년1Q	12,048	10,636	9,017	4,506	4,926	41,133
증가율	3%	2%	3%	1%	7%	3%



결론

2002년 및 2003년 1/4분기의 메이저 각사의 조업은 그 많은 부분을 원유가격 및 천연가스가격의 변동성, 수급불균형에 따른 정제마진의 변동성 등 외적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02년의 낮은 실적 시현 후, 미국의 이라크공격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총파업 등에 따라 원유가격의 상승과 석유정제마진의 상승이 야기되어 최근 드물게 보이는 2003년 1/4분기의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서는 각사 모두 대담한 포트폴리오의 재구축을 시작하고 있고, 채산성이 없는 자산의 매각·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